

‘우승 도전’ ‘아시아 무대’ “스포츠도 풍성”

추석 연휴 야구·축구 등 주목 KIA, 정규 시즌 우승 판가름 광주, 요코하마와 첫 맞대결 KPGA·추석장사씨름대회 프리미어리그·메이저리그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 대명절 추석에 주말이 겹치며 5일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진 가운데 둥근 보름달처럼 풍성한 스포츠가 준비됐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국내·외에서 경기가 이어져 온 가족들이 모여 밤낮으로 스포츠로 웃음꽃을 피울 것으로 기대된다.

●KIA타이거즈, 보름달 아래 우승 목표 터트릴까

KIA타이거즈는 추석 연휴 기간 우승 목표를 터트릴 준비를 마쳤다. KIA는 14~1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키움히어로즈와 맞대결을 치른 뒤 수도권으로 이동해 16일에는 KT위즈, 17일에는 SSG랜더스와 격돌한다.

KIA의 승리뿐만 아니라 2위 삼성라이온즈의 패배 시에도 매직 넘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규 시즌 우승과 한국시리즈 직행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삼성이 14~15일에 SSG와 먼저 맞붙기 때문에 추석 광파르의 캐스팅보트가 인천SSG랜더스필드로 향하는 모양새다.

이범호 감독은 일찌감치 총력전을 예고했다. 14~15일 키움전에 에릭 스타우트와 양현종이 선발 등판한다. 스타우트와 양현종으로 연승을 달린 뒤 수도권에서 마침표를 찍겠다는 구상이다.

김도영의 도전도 이어지고 있다. 김도영은 국내 선수로는 최초로 40홈런·40도루 달성과 KBO 리그 한 시즌 최다 득점인 135득점을 경신할 준비를 마쳤다. 최다 득점 역시 추석 연휴 기간에 새로 쓸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다소 김빠진 결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KIA가 17일까지 매직 넘버 한 개를 남겨놓은 뒤 휴식일인 18일 삼성이 KT에 덜미를 잡힌다면 숙소에서 정규 시즌 우승이 결정된다.

●광주FC, 보름달과 함께 첫 아시아 무대 출격한다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지난 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키움히어로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맞대결에서 승리한 뒤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광주FC는 추석 당일 보름달의 기운과 함께 창단 첫 아시아 무대에 나선다. 광주는 오는 17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일본 J1리그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 2024-2025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1차전을 치른다.

광주는 지난해 K리그1 3위에 오르며 ACLE 플레이오프 티켓을 획득, 아시아 무대 진출을 확정 지었으나 상대로 배정됐던 센트럴코스트 매리너스 FC(호주)가 2023-2024 A리그 멘 우승으로 본선에 직행하며 부전승 행운을 얻었다.

이정효 감독은 ‘용기 있는 도전’을 천명했다.

이 감독은 ACLE 출정식에서 “광주FC와 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광주FC와 광주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겠다. 선수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고 아시아에 우리 선수들을 빛낼 수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 감독은 ACLE 등록 명단을 주장 안영규와 부주장 이민기, 이희군 등 29명으로 꾸렸다. 골키퍼진에 유경협자들이 포진한 것은 긍정적 요소다. 김경민은 2018

년 제주유나이티드, 이준은 2021년 포항 스틸러스 소속으로 아시아 무대를 경험했다. 필드 플레이어로는 김한길(2020년 FC서울 소속)이 유일하게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1부리그 승격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전남드래곤즈는 오는 15일 오후 4시30분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부산아이파크와 하나은행 K리그2 2024 30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전남은 현재 12승 7무 8패(승점 43)로 2위에 올라 선두 FC안양(14승 6무 6패·승점 48)을 5점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KPGA·추석장사씨름대회 가족들과 함께 본다

KPGA(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OK저축은행 옷맨 오픈이 13일부터 15일까지 인천 중구 원더클럽 클럽72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올 시즌 KPGA 투어 31개 대회 중 23번째다.

KB금융스타챔피언십을 제패하며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유현조(삼천리)를 필두로 박지영과 박현경(이상 한국토지신탁), 배소현(프롬바이오), 윤이나(하이트진로) 등 간판 선수들이 모두 출격한다. LPGA(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에서

활약 중인 최혜진(롯데)도 올 시즌 세 번째로 KPGA 무대에 나선다.

박지영이 올 시즌 누적 상금 10억1310만2717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2~3위에 올라 있는 박현경(9억7797만6085원)과 윤이나(8억7360만4286원)가 10억 고지를 밟을지도 주목된다. 이번 대회 총상금은 8억원, 우승 상금은 1억4400만원이다.

위더스계약 2024 추석장사씨름대회는 12일 경남 고성군국민체육센터에서 막을 올린 가운데 오는 18일까지 열린다. 14일 태백장사를 시작으로 15일 소백장사, 16일 금강장사, 17일 한라장사, 18일 백두장사가 가려진다.

남자부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윤성민과 김민재, 박성용(이상 백두장사), 최성환, 박수훈, 차민수(이상 한라장사), 조운호, 유환(이상 금강장사), 이은수, 장영진, 남우혁(이상 태백장사)이 출전한다.

●김민재·이강인·손흥민 등 해외파 활약 이어진다

독일 분데스리가와 프랑스 리그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등 빅리그에서 활약 중인 해외파들의 발끝도 기대를 모은다. FC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는 15일 오전

1시30분 훌슈타인 길을 상대하고, 파리 생제르맹 FC의 이강인은 같은 날 오전 4시 스타드 브레스트아 29를 상대로 출격을 준비한다.

토트넘 홋스퍼 FC의 손흥민은 15일 오후 10시 아스널 FC와 ‘북런던 더비’에 나서고, 16일 오전 12시30분에는 올버햄프턴 원더러스 FC의 황희찬이 뉴캐슬 유나이티드 FC, 1. FSV 마인츠 05 소속의 이재성이 SV 베르더 브레멘과 맞대결을 치른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부상 중인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마이너리그로 강등된 배지환(피츠버그 파이리츠)까지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활약이 주목된다.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최초로 50홈런·50도루에 도전하고 있다. LA 다저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컴벌랜드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원정 경기를 치른 뒤 18일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말린스 파크로 장소를 옮겨 마이애미 말린스와 격돌한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세한대 최성원, 경찰청장기 ‘금빛 총성’

공기소총 10m 개인전

세한대학교 사격팀 주장 최성원(4년·사진)이 전국사격대회에서 금빛 총성을 울리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메달 전망을 밝혔다.



·227.5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획득 이후 올해 전국 대회에서 입상 성적을 올리지 못했던 최성원은 이번 대회 금메달로 슬럼프에서 탈출했다.

정재는 세한대 사격 감독은 “이번 대회 성과를 통해 그동안 슬럼프로 인해 마음 고생이 심했던 최성원 선수가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냈으면 좋겠다”며 “부족한 점을 더욱 보완해 오는 10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힘껏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시청 육상 정혜림, 여자허들 최강자 재확인

실업단체항 100mH 13초73 내달 전국체전 9연패 도전

‘한국여자허들 간판’ 정혜림(광주시청·사진)이 시즌 첫 출전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을 걸며 클래스를 입증했다.

정혜림은 12일 충남 서천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제35회 KTF 전국 실업단체항육상경기대회 여자 100m허들 결승에서 13초73을 기록, 류나희(안산시청·13초99), 송유진(안동시청·14초51)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정혜림은 지난 겨울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 상태를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올 상반기 실전에 나서지 못했으나 꾸준히 훈련을 하며 컨디션 회복에 집중, 올해 첫 실전



는 없다.

올 시즌도 출발은 늦었지만 워낙 베테랑인데다 기술적인 면에서 완성된 상태였기에 1위는 그의 몫이었다. 자신의 개인 최고기록(13초04)이나 대회기록(13초38)과는 거리가 있었으나 1위는 놓치지 않았다.

정혜림은 다음달 열리는 제105회 전국

체육대회에서 여자허들 9연패에 도전한다. 정혜림은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이 부문 8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열린 모든 전국체전에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 것이다.

1987년생으로 육상 선수로 적지 않은 나이지만 최근 국내 대회 여자 허들에서 정혜림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는 없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정혜림이 지난 겨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이겨냈고 기술적인 면에서 완성이 된 상태라 우승할 수 있었다”며 “전국체전 9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남은 한달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